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수빅
파견대학	바탄반도주립대학	기간	2018.6.30.(토) ~ 2018.7.27(금)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일단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어학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수빅에 위치해 있으며 어학원 자체가 산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생각보다 이동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기숙사 어학원이라서 먹고 자고 공부하는 곳이 한 건물에 있으며 공부하러 가는 길이 가까워서 좋으나 단조롭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SLC 전체적인 분위기는 현지인 선생님들이 다들 밝고 활발하셔서 좋습니다.
수업	1교시부터 8교시까지 50분 동안의 수업을 8번 진행합니다. 첫 수업 시작 시간은 8시이며 끝나는 시간은 4시 50분입니다. 이 사이에 점심 시간이 한 시간 있으며 수업은 1:1 수업 4번, 그룹 수업 4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 수업에서 단어 수업 두 번, 숙어 한 번, 이슈에 관한 수업 한 번 총 네 번의 수업을 하였고 그룹 수업에서는 토익 스피킹, 자기 소개, MMC, 리딩 총 네 번의 수업을 하였습니다. 그룹은 레벨 테스트로 배정이 되며 저 같은 경우엔 그룹을 잘 만나서 그들에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과제는 거의 없는 편이지만 선생님들과 원활한 대화를 원한다면 미리 지문을 읽어가거나 단어를 외워 가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들은 모두 열정이 넘치시고 학생들을 많이 배려해줍니다. 각 교시별 수업에 대해 자세한 부분은 밑에 따로 적었습니다. 1) 단어 수업 (1:1) 단어 책을 보면서 모르는 단어를 미리 체크 하고 되도록 사전은 보지 않으면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유추하곤 했습니다. 함께 단어를 읽어보고 교재의 문제들을 풀면서 외울 수 있도록 유도했으며 실생활에서 단어를 응용해 보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챕터별로 모르는 단어 체크 -> 단어 읽기 -> 문제 풀기 -> 지문 읽기 순으로 늘 진행했습니다.

2) 토익 스피킹 (G)

실제 토익 스피킹 시험처럼 준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중간마다 짧게 스피킹 테스트 시험을 보면서 토익 스피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배웠습니다. 아쉬운 점은 컴퓨터 화면이 작고 하나라서 거리가 좀 있는 자리는 잘 안보였다는 점입니다. 빔 프로젝트가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3) 자기 소개 수업 (G)

자기가 관심있는 주제를 가지고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섯 명의 그룹원이 돌아가면서 주제를 하나 가지고 질문하거나 대답, 토론하는 방식이다 보니 평소 생각을 영어로 전달하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교재에 의존하기보다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다 보니 중구난방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4) 이슈 수업 (1:1)

이슈들을 가지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고 내 생각을 말해보는 수업이었습니다. 정치, 경제, 사랑, 생활 등 다양한 이슈들이라 스스로 생각해보는 일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일 대 일 수업이다 보니 내가 답을 못하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지문을 미리 읽고 가는 것이 나중에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이해하기 편할 것입니다.

5) 단어 수업 (1:1)

1교시의 수업과 동일한 방식이지만 교사와 챗터가 달랐습니다. 1교시 선생님과 반씩 나눠서 진행하였습니다. 이 교시 선생님께서는 단어 뿐만 아니라 말하는 억양이나 방식등을 교정해 주시면서 새로운 지식을 알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저는 이 수업도 참 좋았습니다.

6) MMC 수업 (G)

그룹원들이 커머셜(광고)과 뮤직비디오 하나씩 총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하는 미디어 수업이었습니다. 과가 과인지라 상당히 재미있었고 가지고 있는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그룹원들 또한 열정적이었고 가르쳐주시는 선생님 또한 저희 그룹을 많이 좋아해주셔서 멋진 결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영화나 비디오, 영상을 보면서 광고란 어떤 것인지 이론을 배우기도 하였습니다.

7) 리딩 수업 (G)

교재를 보고 지문을 읽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리딩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모르는 단어가 많아 거의 단어 수업 같았습니다. 역시 글을 읽으려면 단어를 알아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수업은 거의 액티비티 위주라서 수업보다는 활동을 주로 했습니다.

	8) 숙어 수업 (1:1) 지문을 읽고 숙어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먼저 그림을 보고 이야기를 유추한 후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이해하곤 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숙어를 외우기에 좋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종이에 직접 적어오시는 등 많은 준비를 해주셔서 더욱 좋았습니다.
Activity	1) 수빅 투어 도착하자마자 처음 가는 투어입니다. 수빅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앞으로 살 곳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해주는데 귀국 후 잠도 못자서 컨디션도 안 좋고 레벨테스트를 본다고 진이 빠진 상태라 많이 힘듭니다. 졸리고 많이 걷느라 피곤해서 제정신이 아닌데 비까지 와서 더욱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돌아다니는 내내 즐거웠고 신기해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수빅 투어를 하면서 타는 교통수단의 돈을 내야하고 오토바이 비슷한 교통수단을 타고 돌아보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돈을 냈습니다. 많이 걷는 만큼 편한 복장과 신발을 유지하시고 짐은 가볍게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우산 꼭 챙기셔야 하구요. 2) 안바야 코브 리조트 개인적으로 최악이었습니다만 리조트 자체는 예뻐습니다.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쉴 곳이 필요했는데 매니저들이나 어학원의 대처가 미흡했고 오히려 왜 아프냐는 듯 질타를 받아서 서러웠습니다. 그러나 이 후 리조트 내에 클리닉 룸에서 주사를 받고 쉴 수 있었고 대표님이 그 후로 많이 챙겨 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아파서 딱히 좋은 추억은 아니었으나 리조트는 넓고 음식도 맛있고 수영하기도 좋았습니다. 리조트 가기 전 1000페소를 걷었고 나중에 쓴 금액을 빼서 돌려주는 형식이었습니다. 수영복이 아니면 수영장에 들어 갈 수 없으므로 꼭 수영복을 챙겨 가시고 단체로 몰려 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신고를 한다고 하니 소인원으로 노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마닐라 투어 아침 일찍 버스를 타고 가서 조별 활동을 하다가 이후 개인시간을 갖습니다. 하지만 거의 인증 사진만 찍는 듯한 활동이라 마닐라를 즐겼다고 하긴 아쉬웠습니다. 중간 중간 교통 수단 때문에 돈이 자잘하게 자주 빠져 나갑니다. 동전이나 거스름돈을 구비하는 것이 편할 것입니다. 많이 걷는 활동이라 옷이 간편하면 좋고 올오브아시아를 구경하기엔 시간도 짧고 장소도 넓어서 미리 가고싶은 곳을 조사하거나 구매할 것을 생각해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니 선풍기나 쿨토시 등을 가져가시면 후회 없을 것입니다.

	4) 요트 투어 태풍이 와서 취소되었습니다만 요트 투어를 대신할 활동도 없었고 제대로 된 공지도 없어서 흐지부지 끝나버렸습니다. 학교에서 지불한 금액이 아니라 대표님 개인이 요트 비용을 내주시는 거라 따로 대치는 없다는 말이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공지라도 제대로 해주거나 일정을 바꾸지만 않았더라도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	--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 기후 및 유의점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비와 우산을 소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리핀이 6~8월 우기다 보니 비가 많이 내렸고 태풍도 와서 요트 투어가 취소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니 하계보단 동계 필리핀을 추천합니다.
안전	현지 안전 상황 치안과 같은 부분에선 거의 위험할 일이 없지만 외출 시 늦게까지 술집에 있을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꼭 두명 이상 다니고 여자들끼리 다니면 위험하다고 하니 이 점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기숙사 내에서 전기나 위생 상 부분에서는 안전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갈이 조심해야 하고 건강을 신경 써야 합니다.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 외부 숙소() 기타() 숙소 시설, 분위기, 규칙, 유의사항 등 숙소 전반에 대한 평가 숙소는 에어컨 코드를 뽑는 곳이 계속 스파크가 튀어서 감전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물이 노란색 물이 나오거나 천장이 무너지는 등 안전과 같은 부분에서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룸메이트끼리 친해져서 좋았지만 그 점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개선이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외부식당(●) 기타() 본인이 주로 이용한 식사방법 체크, 식사 전반에 대한 평가 저는 주로 학교 식당을 이용했으며 외출 할 시에 외부 음식을 먹곤 했습니다. 식사는 맛있었습니다.
교통	통학방법, 시내교통 관련

	주로 택시를 이용했으며 흥정이 붙을 경우 잘 보고 타야합니다. SLC에서 택시를 타면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	727,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사비	700000	
		이익
합계	1,427,000	

5. 출국 전 준비사항

절대 아프지 마시길 바랍니다. 필리핀에서 여행자 보험을 들어놨지만 그래도 절차가 복잡하고 아프면 수업을 빼먹거나 외출을 못하는 등의 제한이 걸려서 아프면 몸도 마음도 고생입니다. 그리고 장이 안좋으신 분들은 정말 미리 준비를 제대로 해 가져야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리조트에 갔을 때도,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도 입원을 하는 등 고생을 했습니다. 해외 카드가 있는 분은 수수료 250 페소 드니까 생각하면서 환전하시면 될거 같고 선생님들 선물을 무조건 사가세요 특히 김을 사가시면 정말 좋아하실거예요. 한국적인 선물을 주면 기뻐 하실거예요. 편지지 같은 경우도 사가면 좋고 필리핀 수빅에서 가고 싶은 곳이나 먹을 곳, 버킷리스트 등을 미리 정해 가시면 좋습니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에서 얻은 것은 사람이고 잃은 것은 건강입니다. 필리핀 어학연수가 어학실력 증진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만큼 벅찬 스케줄이라 저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만큼 실력은 늘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 억양이나 발음이 가끔 신경 쓰일 때가 있었지만 대부분 좋았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한 룸메이트, 친구들과 잊지 못할 추억과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행복했고 그룹원들과도 앞으로도 꼭 인연을 이어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의 진행에 있어서는 제가 성격이 급한 것도 있고 답이 딱 나오는 것을 좋아하는 터라 답답
--

했었습니다. 이후 매니저들이나 어학원 자체에서 진행에 있어 원활히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같은 학교 학생들이 모이는 자리를 빨리 만들고 단톡방을 미리 개설하는 것이 친해지는 것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늦게 친해 진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큼니다. 앞으로 저는 필리핀에서 있었던 경험을 토대로 해외에 관심이 많아지고 진로에 고민이 생겨서 휴학할 생각입니다. 향후 살아가면서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참 선택을 잘했구나 하는 경험이 되어서 행복합니다. 더욱 자세하고 생생한 후기는 필리핀 어학연수라고 네이버에 쳐보시면 많은 경험자의 블로그 글들이 있으니 미리 정독하고 오시면 많은 도움 되실 겁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대표 오빠를 위해 살신성인 하는 우리 그룹원들 *^^*	술 취한 막내들의 귀여운 모습을 본 날 *^^*
	
내가 정말 사랑하는, 방금 알게 된 반전이 있던 선생님 *^^*	루니 티쳐에게 MMC 첫 챔피언 메달을 드릴 수 있어서 기뻐다 *^^*



나이 많은 영어 영재 반 *^^*



렌즈 한 쪽과 신발 한 짝
잃어버렸던 물놀이 *^^*